

### 연예인 초청 법회

#### 전주교도소 불교교정위



11월 13일 전주교도소에서 열린 연예인 초청 대법회.

지역불교계가 교도소 불자를 위해 연예인 초청 대법회를 봉행했다.

전주교도소 불교교정위원회(위원장 승현)는 11월 13일 전주교도소 대강당에서 연예인 초청 대법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전주 MBC라디오 모닝FM에서 인기 MC로 활동 중인 김차동 씨 사회로 불자가수 진성씨를 비롯해 인기가수 7명이 출연해 음성공연을 펼치며 법회에 참석한 300여 불자 재소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일광 스님은 법에서 "추운 겨울을 맞아 불자 재소자들이 신심을 잃지 않도록 법회를 마련했다"며 "희망을 잃지 않고 참회 기도를 통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관음보살서 400년 된 유물 발견

## 익산 관음사 11월 24일 '불상 조성기' '나무묘법연화경' 등 공개

익산 관음사 관세음보살에서 400여 년전 성보문화재가 발견돼 눈길을 끈다.

익산 관음사주지 덕립은 10월 17일 관세음보살 입상 이운과정에서 불상 조성기, <나무묘법연화경> 2권, 두루마리로 된 다라니 2점, 고문서 등 성보문화재를 발견했다고 11월 24일 발표했다.

관음사는 80여 년전 일본인에 의해 강건된 절로 익산시 중심가에 위치한다. 성보가 발견된 관음보살은 높이 153cm의 목불로 관음사 창건 당시 불안된 것으로 추정된다. 관음사 2층 이리불교대학 강의실에 모셔져 있다가 10월에 3층 법당에 봉안돼 익산불자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발견된 불상 조성기에 따르면 관음보살 입상은 익암 스님이 400여 년 전인 만력 33년(1605년)



조성했다. 1597년 북암이 입진에 탄으로 불타 소실된 것을 1601~1605년 5년에 걸쳐 중수하는 과정에서 법당과 삼존불, 문수·보현·관음·지장보살 존상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운 당시 유물을 발견한 김진수 단장(전북포교사단)은 "불상조성기에 언급된 북암은 진안 현황사에 절터만 남은 북암으로 추정

된다"며 "전문가들의 고증을 통해 관음보살 입상의 역사를 밝히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지 덕립 스님은 "이운과정에서 발견한 유물은 문화재 전문가의 고증과 익산시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관음사가 익산 불교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상 조성기 등을 펼쳐 보이는 덕립 스님(왼쪽)과 400년 전 조성기 등이 발견된 목조 관세음보살입상(오른쪽).

조동제 전북지사장

### '절' 강의 열려

#### 법왕정사 광주분원 개원



11월 23일 법왕정사 광주상무법당 개원식 후 대중들이 절수행을 하고 있다.

'절' 가차게 잘하는 법'으로 유명한 정견 스님의 법왕정사가 빛고을 광주에 분원을 세웠다.

11월 23일 광주 신도심인 상무지구에는 정견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왕정사 광주상무법당' 개원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호남지역 포교에 나섰다.

개원식에서 정견 스님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차릴"을 하는 것이 불교수행의 요체"라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수행정진 하자"고 강조했다.

법왕정사 광주상무법당에서는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강의와 실습, 참선호흡수행과 염불선 집중수행 등이 열린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천도재 봉행

#### 도솔암서



11월 23일 고창 선운사 도솔암서 봉행된 18번째 천도재.

고창 선운사 도솔암(주지 지선)은 11월 23일 '1029일 지장 영가 천도재' 중 18번째 천도재를 봉행했다.

천년 지장기도 도량인 선운사도솔암은 2006년 2월부터 1029일 동안 49일간의 천도재를 연속으로 21번 봉행하는 지장 기도를 봉행 중이다.

'1029일 지장 영가천도재'는 2009년 4월 19일 회향법회까지 계속된다. (063564-2861 조동제 전북지사장

### "불제자의 길은 이웃과 사회에 헌신하는 것"

#### 26일 대흥사 108 거사 모여 '한듬거사회' 창립

해남지역불교를 견인할 108명 거사가 모였다. 해남 대흥사(주지 범각)는 11월 26일 대흥사 부설 해남 불교회관에서 한듬거사회(회장 고웅석)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한듬거사회는 대흥사 신도 산하기구로 남사 신도들의 모임인 것이 특징이다. 행사는 보선 스님(대흥사 회주,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을 비롯해 범각 스님(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도감사 주지), 대흥사 소임스님들과 108명의 창립회원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해 진행했다.

보선 스님은 법문에서 경전의 아사세 왕과 밧지 족 이야기를 전했다. 회원들의 화합과 정진을 당부한 스님은 "이번 거사회 창립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 법이 전해지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법문에 앞서 범각 스님은 격려사에서 "심우도 마지막은 '입전수수(入塵垂手)'로 지팡이에 큰 포대를 매고 많은 대중을 찾아가는 장면"이



11월 26일 해남 대흥사 한듬거사회 창립법회에서 보선 스님(가운데)이 거사회 임원들과 축하역을 자르고 있다.

라며 "진정한 불제자의 길은 자신이 선 자리에서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한듬거사회는 3월부터 해남불교대학 각 기수별 회장단과 모범신도들이 모여 창립 준비를 했을 만큼 오랜기간 철저하게 준비해 마련한 실행 단체다. 이날 참여한 창립회원들 면면을 봐도 해남지역의 각 직군별로 고루 구성돼 향후 지역포교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불교계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남군에서 불교대학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대흥사는 이번 한듬거사회 창립을 계기로 지역포교를 한단계 성숙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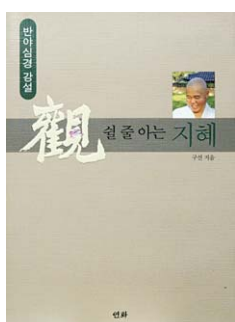
### 구선스님과 함께하는 치유명상

- 일정 : 매주 4박 5일 (1회 20명 한정)
- 대상 : 여름에도 추우신 분, 겨울이 너무나 추우신 분, 손발이 찬 분, 감기 자주 걸리신 분, 상기병, 그밖에 각종 면역성 질환에 시달리신 분.
- 문의 : 010-4589-1897
- 치유명상의 특징과 효과 : 마음원리명상과 식이요법을 병행, 냉기제거와 장부순화, 신진순회와 치매 중풍예방, 우울증 스트레스해소, 면역력 강화
- ※ 뼈 속에 박힌 냉기까지 남김없이 뿌어드립니다.

### 12연기만다라 및 한글자음만다라 전시회

- 일정 : 2008년 12월 5일 - 12월 11일(목요일)
- 장소 : 법림사 (서울 종로구 사간동 121-1 / 02-733-5322)

- 본원 : 서울 서초구 방배동 836-3 / 070-8104-8145, 010-2655-8145
- 산본지원 : 군포시 산본동 1061-1번지 현대아카데미상가 401호 사무이침향원내
- 동대문지원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962번지 3층 동천선원 / 070-8247-8152, 010-8004-4678
- 대전지원 : 대전시 서구 탄방동 702번지 한빛빌딩 3층 청심연꽃집 / 011-658-9817
- 보령지원 :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 392-2 대명암 / 010-9948-6325
- 연희사 :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887-2번지 / 010-2655-8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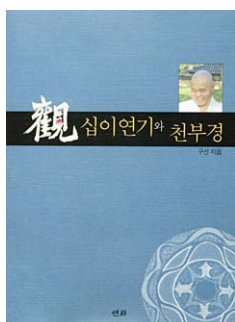


[구선지음 / 368쪽]

### 관: 줄 아는 지혜

'관' 수련의 목적은 자기를 아는 데 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 근본과 자기 면모, 그리고 자기 존재 목적을 아는 것이다. 자기 근본이란 자기의 식이 비롯되는 자리를 말한다. 자기 면모란 자기를 이루고 있는 의식체계를 말한다. 자기 존재 목적이란 세상 속에서의 자기 역할을 말한다.

■ 상세내용 : 반야심경을 관의 심지법에 입각해서 해석한 책. 조건의 법과 오온의 발현법, 개공의 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견성 이후의 수행법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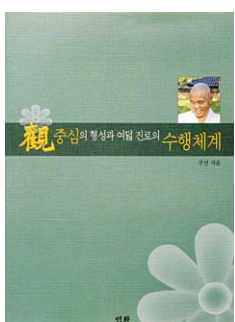


[구선지음 / 376쪽]

### 관: 심이연기와 천부경

생명에게 무명의 원인이 되었던 것은 밝은 성품이 일으키는 행의 현상과 심의, 그리고 밖의 경계이다. 만약 생명이 그런 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본성을 망각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밝음을 얻은 것이다. - '심이연기' 중에서 생명이여 당당하라. 그리고 일체 생명을 평등하게 보아라. 저는 나의 심의에 심어지고 나는 저의 심의에 심어지니 경건하고 정중하게 못 생명을 바라보라. - '천부경' 중에서

■ 상세내용 : 생명이 최초로 시발되는 과정과 육체의 의식을 형성하는 과정, 그리고 생명이 그 존재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 심이연기법과 천부경은 그 내용 속에 서로 부족한 것을 매꾸어 줄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이 책은 심이연기와 천부경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두 사상의 깊은 뜻을 살피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깊은 뜻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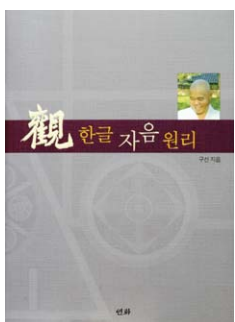


[구선지음 / 312쪽]

### 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수행자가 한 경계를 대할 때는 여덟 가지 진로로 그 나아갈 바를 삼을 줄 알아야 한다. 무엇을 일러 여덟 가지 진로라 말하는가? 첫째는 자기 중심을 통해 조건을 행하는 일이다. 둘째는 자기 근본의 일이다. 셋째는 자기 면모의 일이다. 넷째는 각성을 증득하는 일이다. 다섯째는 자기 존재목적 실현하는 일이다. 여섯째는 좀 더 넓은 교유성을 갖추는 것이다. 일곱째는 자기 인식의 틀을 넓히는 것이다. 여덟째는 자기를 제도하는 것이다.

■ 상세내용 : 대중의 삼관법에 입각해서 견성오도에 이르는 법을 제시. 용수로부터 전해진 대승불교의 수행체계를 여덟 진로에 입각해서 아홉 단계로 구분해 놓았다. 특히 중관을 통해 선정을 얻는 법과 공관을 통해 삼계를 얻는 법, 가관을 통해 자기면모를 개발하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구선지음 / 256쪽]

### 관: 한글 자음 원리

문자는 자기의식을 담은 그릇이요, 사상을 담은 그릇이다.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심성이 달라진다. 부드러운 말, 좋은 말을 쓰는 이는 유순하고 심성이 교화되며 거친 말, 격한 말을 쓰는 이는 심성이 거칠어진다. 처음에 한글을 만들 때부터 이런 효과를 알고 만들었다. 한글은 철학적, 사상적 체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체계를 일깨워서 오장의 혼성을 활용하는 법이 들어 있다. 그래서 가장 상위의 문자체계이다. 가장 안정된 신경체계, 가장 안정된 감각체계, 가장 안정된 장부체계를 갖추어서 머릿골 속에서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한글 자음 수련의 목적이다.

■ 상세내용 : 한글 자음원리를 통해 생명이 자기완성에 이르는 법을 제시. 한글 자음원리란 심이연기의 과정 중, 행의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를 자음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자음원리란 행의 원리이면서 수행의 방법이다. 자음원리를 통해 수행하게 되면 생명의 연지에서 벗어나 진언문에 들어가게 된다.

구입문의 : 연화출판사 010-4589-1897